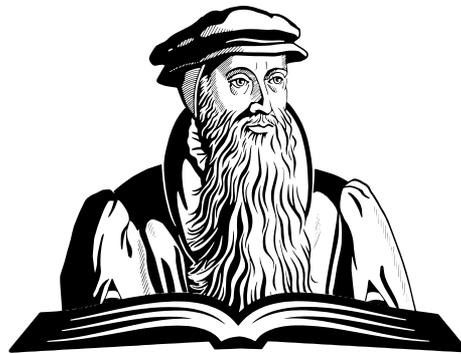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3: 타락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3

타락

강의 주제: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그 교제를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본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1-22).

강의 스크립트 3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곧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나쁜 소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소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 의사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지금 당장 여러분을 수술실로 데려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수술은 회복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수술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서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놀랄 것이고 치료방법을 알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의사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이해하게 될 때 좋은 소식은 극대화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그 교제를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은 우리가 구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한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 구속사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제시합니까?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인간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근본적인 변화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복음의 약속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번째 강의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로서 자신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주이

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하여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책임을 가지며 주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비롯되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인간이 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13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번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주목해 보세요. 거기 보면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인간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이 뱀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12:9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우리는 이 뱀이 다른 어떤 짐승보다 더 교활하고 간교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뱀은 속이되 간교하게 속이는 방법으로 일합니다. 뱀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내내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인간을 향한 계시를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창3:1)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습니다.

이 유혹에서 사탄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공격했고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찾지도 주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8:44)

우리는 태초부터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사탄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3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 3장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에 나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거나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일3:4은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데, 바로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빼먹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는 것을 빼먹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인생의 모든 비참함은 결국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범죄자의 길은 힘듭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땅, 그리고 뱀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아담이 즉시 죽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가지에 주목하세요. 첫째로, 이것은 영적인 죽음으로서 아담의 영혼의 부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엡2:1)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

자면 선한 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직 죄를 지을 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이 죽음의 종이 계속 반복해서 울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판결입니다. 아담의 영혼과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히 정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18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는 반드시 죄가 범해진 대상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정해져야 합니다. 가장 작은 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범해졌더라도 이는 영원한 형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첫번째 죽음 아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는지 봅니다. 비극적이게도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죄책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책임에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염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책과 오염은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체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소외되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영광과 영예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로마서3:23에 있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3:24에 이 엄청난 추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59:2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둘째로, 우리는 죄가 오랜 시간동안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3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모든 요소는 거기 있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언약으로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호세아6:7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언약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23장에 가서 그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약속이라는 축복은 순종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생명나무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었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죽음의 저주가 경고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고 언약의 저주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언약은 그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아담에 의해서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위치를 포함해서 남은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동안 성경의 후대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담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진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공합니다. 먼저 아담은 단순히 자신에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 혹은 언약적 머리(federal head)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한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의 첫번째 죄는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범한 첫번째 죄의 책임이 그의 자손들에게로 전달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12-19은 바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아담의 첫번째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 답은 우리가 “전가”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전가”라는 이 단어를 로마서 4장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전가는 법률적 용어로서 “~에게 돌리다” 혹은 “어떤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다. 혹은 계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첫번째 죄의 책임은 그의 자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약적 머리로서 우리와 연합된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결과, 곧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가의 신학은 다른 이유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세가지 중요한 전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는 복음의 심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담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21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아담의 첫번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된 것도 불의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부패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되 일반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그에게서 시작하여 자손에게로 전달되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모든 죄와 허물의 출처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가?” 정답은 후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진리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아담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관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5:21-22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그의 씨의 대표이듯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선택하신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담이 잘못된 것을 무효로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은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벌을 받는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을 그 상태에서 구출하고 끌어 올려서 아담이 타락전에 누리던 상태로 올려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순종하고 영생으로 올림을 받아야 했지만 반대로 그는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단순히 아담의 지위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약속을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수업과정의 마지막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첫번째 복음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첫번째 복음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 외로이 한 별이 하늘에 나타나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15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 약속을 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 창세기3장에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창세기 3:15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교리가 배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처음으로 비추는 장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약속은 은혜언약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이 첫번째 언약인 행위언약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짐에 따라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언약의 형태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언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추락해 버린 인간의 새로운 형편을 다루는 그런 언약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은혜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은혜언약의 첫번째 씨앗을 바로 창세기 3:15에서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주도권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는 모습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성경은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이 은혜언약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역사의 남은 부분들을 통해서 은혜언약에 대한 자신의 계시를 펼치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가장 충만하게 표현될 때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그 후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이 유일하고 단일한 은혜언약에 대하여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15에서 요한계시록2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견되는 지배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언약을 통해 구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15에서는 이에 대한 한줄기 빛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게 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기초 위에 그 계획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20문은 이 진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골로새서2:15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뒷꿈치가 상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의 자리에 서실 것이며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최초의 저주는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3:13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창세기 3:21에서 이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물론 새로운 가죽은 동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것은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장인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히브리서2:14,15에 나오듯이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약속을 추적해야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더 추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교회의 대헌장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첫 번째 복음인 창세기3장15절도 이 대헌장을 교회에 제공합니다. 이 구절에 세개의 대조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첫째로, 뱀과 여자입니다. 이는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연합이 종말을 고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와 사탄에 대하여 대적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번째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반면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로, 교회와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인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대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전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여인의 신실한 후손과 뱀의 반역적인 후손 사이를 구별하여 나누어 줍니다. 셋과 가인의 자손들을 나누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나누며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을 구별합니다. 물론 여인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약속은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와 사탄의 통치에 속한 세상 사이에 적대감과 전쟁이 있다는 상황을 설정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교제에서 분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6:14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신학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대헌장입니다. 창세기3:15과 요한일서 3:8, 10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 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3:15의 약속은 마귀를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확장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16:20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창세기3장에 있는 그 구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2장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약속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저주가 웅장하게 역전되는 것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약속은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와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천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합니다.

결국 저주의 선언이 있는 창세기3장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저주와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제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펼쳐지는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3,4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어떤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21:4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죄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인 가닥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이러한 주제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제들을 노아의 시대에는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